

전문건축사제도

Specialist-Architect System

李廷根/종합건축사사무소 우리 계획
by Lee, Jeong-Keun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나니 아침저녁 공기가 한층 상큼하다. UR이니 건설업계의 설계권 요구, 건축교육 제도개선, 건축사법, 도서등록제도, 감리제도 등등 건축관계 제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한해의 종반에 접어들고 있다. 제도판 앞에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전문 건축직능에 대한 여러 사안들을 한데 꿰어서 다시한번 조용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안과 밖으로부터 도전받고 있는 전문건축 직능계의 문제는 어제 오늘에 돌출된 문제이기보다는 오랜기간 축적된 원인들의 결과이겠기에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서로의 의견이 다른 건축계 여러 분야의 선후배간에 지혜를 짜내고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없이는 쉽게 풀리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난마같이 얽힌 바둑의 복잡한 싸움에서도 맥점이라는게 있는데 과연 우리 전문 건축직능계의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에는 맥점이 없을까 한번쯤 희망을 걸어보게 된다.

해마다 찾아오는 건축사 시험 시즌이 되면 사무실마다 수험자들의 휴직과 결원사태로 업무수행이 파행적으로 된다. 해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은 건축계의 커다란 손실이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작은병이라고 방치하다가가는 끝내 불치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 시험에 임하는 학도들은 또 얼마나 많은 소모적인 시간과 정신적 압박을 감내해야 하는가.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우리나라의 축성제도에 대한 글을 읽은 기억이 난다. 성안에서 적을 맞아 싸우는 병사들이 성밖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근심때문에 전쟁을 잘 치를 수 없으니 축성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요지였다. 여기서 축성법에 비유되는 오늘 우리 건축계의 사안은 건축사 시험제도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있다.

건축설계를 필생의 업으로 삼겠다고 희망에 가득차 학업을 마치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수업을 시작하는 직원들을 보면 꽤 오랜전의 나의 경우가 생각난다. 무언가 멋진 설계를 해보겠다는 의욕과 호기심 그리고

건축가가 된다는 자부심에 가득찬 출발은 바로 현실에 부딪치면서 환상에서 깨어나기 시작한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사람사는 세상에 항상 따라다니는 삶의 조건이다. 하여튼 여러가지 힘들어 복잡하게 얽혀서 작용하는 현실에서 디자인의지란 뚜렷한 선을 굿듯 그렇게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사람을 쫓아들게 만든다. 그리고 설계의 많은 결정과정에서 나의 역할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설계하는 행위가 사회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기보다는 가진 자의 소원풀이를 도와주는 정도이거나 하는데까지 생각이 미쳐서는 그만 의욕이 꺾이고 마는 것이다. 나는 이 사회에서 보다 많은 사람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며 그만큼 나의 일이 가치가 있다는 자부심은 여지없이 사라지게 된다. 사회에 발을 디디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수업을 시작하는 초년병들을 보면서 내가 겪었던 갈등을 그들 또한 겪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러한 갈등의 구체적인 실생활에서의 현상은 사무소의 분위기, 소장과의 관계, 사무실 동료들과의 관계 또는 개인적인 가정사정 등과 얽혀서 일어난다. 그러나 설계라는 직업관에 대한 확신과 직업의 전망, 일에 대한 동기부여와 만족은 사실상 건축사의 이 사회에서의 역할구조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건축직능의 사회에서의 역할구조에 있어서 구조적인 불확실성은 건축학도들의 직업관을 불안정하게 하는 뿌리깊은 원인이다.

‘건축가’지 6월호 시평에서 김진애 박사는 많은 건축인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을 다시 한번 공론화하였다. PA지 2월호에 실린 ‘건축직능은 구원 가능한가?’라는 내용을 우리 사회의 사정에 비추어 반추하며 둔감해져가는 건축인들의 의식에 불씨를 지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광범위하고도 근본적인 건축직능의 문제는 건축직능의 역할구조가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모호한 상태로 부유하고 있는 점이다. 많은 건축인이 건축사들이 사회에서 일한 만큼 평가받지 못할

오늘과 같은 시대에 어느 건축사이건 모든 건축을 다 취급한다는 것은 그 만큼 전문성의 약화를 초래하며 전문성의 축적을 불가능하게 한다.

전문건축사의 영역구분은 융통성이 있으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사회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문영역을 어떻게 나눌지는 매우 포괄적일 수도 있고 그 체계에 대한 논의자체가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에대한 깊은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우를 받지 못하고 건축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총체적으로 결여되어 있음에 대해 끝론 불만을 토로해 왔다. 그렇다고 직능을 수행해내는 바탕으로서 설계사무소가 크든 작든간에 직능수행이 안정된 틀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물질적 기초로서의 반대급부를 충분히 받아내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은 그만큼 건축인들의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한 결과이고 직능인의 장래와 역할에 대한 비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윗글에서 지적된 바 처럼 건축계에 대항해서 존재하는 의료, 법무, 엔지니어링 등의 직능계에 비교하면 건축계가 얼마나 전문성의 축적에 소홀하고 대사회적인 역할에 있어 균형있는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지 절실히 느끼게 해준다.

건축직능의 대 사회 관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없이 현상에 매달려 대응요법을 들고 나와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서지 않는다. 건축직능의 원초적인 문제는 대사회 서비스 체계의 미분화 상태에 있다. 동일한 건축사가 집짓는 것에 관한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한다하면 이것은 모든 분야가 깊이 전문화되어가고 정보를 공유하는 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녹슨 칼이다. 원시시대 움막집 짓고 살던 때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는 땅고르기부터 집칸세우기 및 집안의 가구와 조경 등 모두 한 손아귀에 들어왔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다른 분야가 19세기를 기점으로 전문성을 축적해 왔는데 반해 건축분야만은 건축의 예술성이나 건축의 마스터 비올더란 개념에 집착하여 전문성을 축적하지 않았다. 건축에 있어 예술적인 면과 과학적인 면이 중요할 뿐이지 건축은 건축이다. 전문성을 확고히 쌓아오지 않은 직능분야가 여타 전문성을 쌓아온 연관분야에 영역을 빼앗기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날 건축직능이 영역을 빼앗기고 점점 설 땅을 잃어가고 있음은 사필귀정이다. 누구나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의 유통이 풍부한 사회에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직능은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게 마련이다. 자신들의 전문영역이 확고하지 않으면 지켜야 할 영역의 경계선도 애매모호한 것이다. 의료계나 법무계, 엔지니어링 등의 전문직능계에서는 고도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계의 종합병원 모델이라는 것도 직능의 전문화가 성숙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분화되지 않은 것은 종합해야 할 건덕지가 없는 것이다. 전문화를 추구하려면 그에 따라 교육제도도 체계를 달리해야 하며 여기에 부수되는 연구기능이 뒤따라 주어야 하며 이들은 적절히 건축실무와 상호 연계되어 발전을 가속화하게 된다.

오늘과 같은 시대에 어느 건축사이건 모든 건축을 다 취급한다는 것은 그 만큼 전문성의 약화를 초래하며 전문성의 축적을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대 사회적인 서비스의 질이 항상 제자리에 맴돌고 그 만큼 사회에서의 역할구조가 모호해진다. 사회의 건축직능에 대한 인식이 낮아질 수 밖에 없으며 충분한 용역비를 요구할 근거를 잃게 된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의 연결고리는 대 사회 건축 서비스의 전문화에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전문건축사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의료계의 전문의 제도와 같은 것이고 법무계의 민, 형사 또는 더 세분화된 전공분야로 나누는 것이라든지 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 전문화를 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전문건축사의 영역구분은 융통성이 있으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사회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의료시설이나 교육시설, 공연장, 상업시설, 주거시설, 생산시설, 위락시설 등 한 분야만 깨우칠래도 많은 경험과 연구가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나 모두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건축인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범하게 되는 시행착오의 대가를 사회가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전문영역을 어떻게 나눌지는 매우 포괄적일 수도 있고

건축의 대 사회 서비스와 전문화가 건축분야의 전문성의 축적이 제도적으로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건축사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건축사제도의 도입은 건축전문인의 대 사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에서의 건축사 직능에 대한 인식을 높이게 된다. 더불어 건축교육의 체질개선과 수준향상을 촉발하리라고 예상된다.

그 체계에 대한 논의자체가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깊은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는 '士'자 붙이는 직능의 종류가 수 없이 많아졌다. 각 직능마다 면허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대 사회 서비스 직능의 분화가 다기화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 만큼 대 사회 서비스직능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 사회가 근 반세기에 걸쳐 각 직능별 전문화의 심도를 강화해온데 비해 건축계 내에서의 전문화는 미미한 편이다. 건축직능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매우 다양해졌고 분야별 전문성을 요청하고 있다.

의료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직능의 전문화는 교육의 전문화와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근래에 우리 건축계에 일었던 건축교육의 개선에 대한 논의는 건축설계 교육의 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졌었다.

건축교육의 개혁이라는 과제에서 설계교육에 중점을 두는 측의 밖에 있는 건축분야에서는 논의의 주류에 대항해서 하나로 뭉치는 현상을 보였다. 어떤 교육이건 전제조건이 전인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은 교육이란 의미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여기서 논외이다. 교육을 통해 전문인의 소양을 기른다는 것은 사회의 소용에 닿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의 구축과 대 사회 서비스의 전문화를 외면한 채 설계가 중요한가 기타분야 과목이 중요한가 하는 식의 양분된 논리는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것이다.

전문성을 구축하고 건축의 전문화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건축관련 분야들이 어떠한 틀속에서 서로 연관지어 연구되고 가르쳐져야 하는가가 발상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 비 설계분야가 설계분야에 종속적이어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명제 자체가 존립 불가능한 것이다. 건축직능의 전문성에 관한한 설계와 비설계 분야라는 분류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의료분야에서 사람의 건강을 명제로 어떻게 임상분야와 비임상분야로 나눌 수

있겠는가. 임상은 전문성의 적용행위이며 의료행위과정의 한 단면이다. 설계교육이 중요한가 비설계교육이 중요한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 건축직능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이다.

전문성을 갖춘다는 것은 대 사회 서비스에 보다 철저할 수 있음을 뜻한다. 대 사회 서비스에 철저한 것은 그만큼 신용을 쌓는 것이고 직능의 대 사회적인 역할구조를 확고하게 한다. 따라서 건축직능에 대한 인식은 뚜렷해지고 영역의 침해에 대한 피해의식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직능의 역할이 모호할 때 직능인과 그 서비스를 받는 사회 사이에 상호 관계가 애매해 질 수 밖에 없다. 전문성이 희박한 애매한 영역에는 다른 분야의 직능이 대 사회 서비스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한다. 사회의 각 분야마다 너무 전문화되어 나누어져서 오히려 전체를 못보는 단편적이고 편향된 경향을 우려할 지 모른다. 그러나 분석적이 아닌 종합이란 있을 수 없고 종합적이지 아니고서 분석적일 수도 없다. 전문화라는 것은 그 분야의 이해와 서비스의 심도를 깊이하는 것일 뿐 결코 분야별로 허물 수 없는 벽을 쌓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된다. 아파트 설계를 많이하고 병원설계를 많이 하다 보면 그 분야에 전문이다 하는 말이 성립할 수도 있다. 많이 경험한 결과에 의해 그 분야에 익숙하다는 것은 전문성의 의미를 축소 왜곡할 우려가 있다. 건축행위의 기술적인 수행능력에 그 분야에 대한 통찰력과 여러 상관관계를 내다보는 이해도가 더해져야 할 것이다. 건축의 대 사회 서비스의 전문화와 건축분야의 전문성의 축적이 제도적으로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건축사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건축사제도의 도입은 건축전문인의 대 사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에서의 건축사 직능에 대한 인식을 높이게 된다. 더불어 건축교육의 체질 개선과 수준 향상을 촉발하리라고 예상된다.